



단순화한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최윤환 장로의 말씀을 통해, “단순화한다”의 의미와 그 실천에 대해 배워 본다.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깊이가 심오하지만, 사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인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함

전임 선교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만 18~19세의 젊은 청년들은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청년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깊이 지닐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의지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잡한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각으로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사회 환경

사탄은 진리로 가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흐려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성도들은 발전된 기술과 더불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진리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와 길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위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습성에 따라, 사람들은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쉽게 인생을 사는 방식을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내어 이를 따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높은 교육열을 봅시다. 부모들은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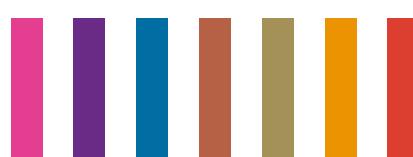
혼란을 겪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모는 세상의 많은 지침과 길을 탐색하며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좋은 교육’이며, 자녀가 인생을 사는 좋은 방식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와 생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번민 속에서, 문제를 단순화해 봅시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누구이며, 좋은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봅시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또한 좋은 교육이란, 이 소중한 존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영원한 예지를 일구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돋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를 연구하느라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교육은 아무 유익이 안됩니다. 그러나 가족 개개인의 영성을 우선시한다면 입시가 단순해지며 교육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니파이후서 9장 29절에는 “…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라는 분명한 말씀이



최윤환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시각을 지니고 세상의 정보에 휩쓸린다면, 더 중요한 원리를 놓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울 때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 노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입시 준비로 새벽 세미나리가 어렵고, 아버지의 야근과 자녀들의 학원 수업으로 경전 읽기 시간이 어려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복잡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정의 밤과 경전 읽기, 세미나리 시간을 생략하거나, 여유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이것들을 미루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 78쪽)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될 때,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단순화함으로써 내가 변화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주변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 하나가 선교 사업 도중 보낸 편지에는,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딴짓도 하고, 세미나리 때 졸기도 했지만, 그때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라는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지 않고 주위만 두리번거린다면 여러분의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유학 시절, 저와 아내는 학생 부부로서 수업을 듣고 생활비를 벌며, 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항상 아슬아슬했고 어린 가장이었던 저는 자주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깨어 우는 자녀를 돌보던 아내를 보며, 저는 힘든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길을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제가 성전 앞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마음이 녹아 내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당장 뛰어 돌아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단순하게 봉사함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이 단순화하는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더 진보적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화한다는 뜻입니다.



감독이라면,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부름을 회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와드에는 약 150여 개의 부름이 존재하는데, 회원이 70~80명인 와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부만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했을 때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의회를 예로 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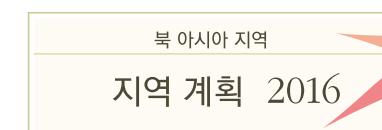
이야기해야 하는 안건은 너무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우선순위를 세워 잘 준비한다면, 3~4시간 동안 모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잘 세웁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없이는, 모임과 봉사를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봉사할 때 와드의 역량이 강화되고, 회원의 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가족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에 부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975년,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은 한국 대회를 위해 방한하셨을 때, '승영의 고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선교 사업, 영원한 결혼이라는 세 개의 고리가 승영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승영으로 가는 길은 길고 협착하지만 그 과정에 거쳐야 할 단계는 이처럼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노력하면, 그분께서는 나머지를 더하여



비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드높인다

단순화한다

힘써 노력한다

강화한다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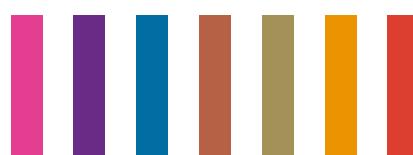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마태복음 6:33), 이러한 약속은 저와 수많은 지도자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축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간단 명료하게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히 청년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주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순종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학문을 구할 때조차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88:118)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워

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위만 바라보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간증과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려 해도 단순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방해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이사야 55:8~9)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입니다. ■



힘써 노력한다—독신 그룹 탄생 1주년

독신 그룹이 조직된 지 1년이 되었다. 청년 독신 성인 그룹(이하 YSA 그룹)과 독신 성인 그룹(이하 SA 그룹)은 지난 2015년 5월 4일, 11일에 각각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와 봉천 와드에 조직되었다.(현재 두 그룹은 모두 서울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소속으로, 일요일 모임 중 성찬식은 두 그룹이 함께, 다른 모임들은 그룹별로 진행하고 있다.)

YSA 그룹과 SA 그룹은 한국 최초의 독신 그룹으로서, 지난 1년 간 다양하게 활동하며 자리를 잡아 왔다. 독신 그룹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축복을 받았다.

지도자로서 훈련됨

독신 그룹 회원들은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과 부름을 경험하고, 지도자로서 직접 교회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한다. 독신 그룹 내 장로 정원회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단, 주일학교 회장단 등이 모두 독신 그룹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력 훈련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독신들을 따로 한자리에 초대하는 수고 없이,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야마시타 장로, 최윤환 장로, 서울 남, 서울, 서울 서 스테이크 회장단, 종교 교육원 교사, 복지 선교사 부부, 교회 역사 고문, 한국 교회 자립 위원 등 지도자들이 지역 경계를 뛰어넘어 많은 독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 중인 방애라 자매는 지도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매주 회장단 모임을 하면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노력한 후 좋은 결과들이 보일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책임감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알아 갈수록 그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지도자로서 경험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신 그룹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독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돋고 있다. 이사, 또는 선교 사업 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회원, 막 재활동화되기 시작한 회원 등, 이들에게는 독신 그룹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 주었으며, 부름이 주어지고 곁에서 붙어 도와주는 친구가 생기면서, 지난 1년 동안 7명 정도의 회원이 독신 그룹으로 나오며 교회에서 다시 활동화되었다.

남 스테이크 권영준 회장은 무엇보다 활발한 선교 사업이 독신 그룹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하며, “여러 저활동 회원들이 독신 그룹을 통해 재활동화되었으며, 선교 사업까지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전한다.

선교 사업 전후의 열정적인 간증들

매월 금식주, 독신 그룹 성찬식에서는 선교 사업 전후 독신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간증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어린 청년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간증은 훌륭한 영향력을 미친다. 독신 그룹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청년들 몇몇은 서로 선교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 모임이 끝난 뒤, 이들은 특별한 규칙이나 광고 없이 자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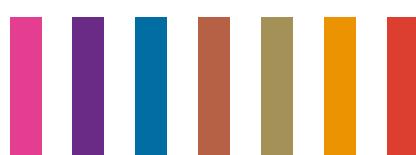
모여 선교사 교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정기적으로 모이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공부반’이 되었다. 예비 선교사들에 이어 귀환 선교사들도 이 공부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윤주영 장로는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YSA 그룹에 다녔고,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윤 장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공부반’ 시간을 통해 귀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귀환 선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비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관해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질문과



교회 활동 및 안식일 모임에서, 독신 그룹 회원들의 다양한 모습들



노량진 와드 김영환 감독



1년 전, 많은

지도자들과
독신 회원들,
부모님들의 기대를
안고 독신 그룹이

조직되었습니다. 설렘과 벅찬 마음을
안고 청년들과 함께한 첫 안식일
모임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 것처럼 경건하면서도 매우
영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부모이자 훌륭한
남편과 현명한 아내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정과
화합의 길을 걷고 있으며 미래를
꿈꾸는 그룹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우며 가르치고,
웃고 우정을 나누며 훌륭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독신 그룹이 계속해서 복음의 터전
위에 잘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난 청년들이 이 시대를
위한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독신 그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의로운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로운 장소에서 신앙을 키운다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강화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 및 독신 성인들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해
봅니다. ■

노량진 와드의 김영환 감독은 SA 그룹,
YSA 그룹을 포함하여, 모든 노량진 와드
회원들을 돌보고 있다.

대답은 종종 간증으로 연결되었고,
예비 선교사와 귀환 선교사 모두가
간증하며 서로 강화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깊은 친구들의 좋은 영향력

비슷한 연령의 독신들, 특히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정과 간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독신 그룹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다. 토론식 공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모든 공과 시간마다 자신의 이야기와
간증을 활발하게 나눈다. 대부분의
공과가 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독신이라는 같은 상황을 겪는 만큼
서로의 간증과 경험에서 공감하는
바도 크다. YSA 그룹의 정문주 자매는,
“독신들은 이곳에서 간증과 의견을
나누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요. 특히
평일 동안 일상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그럴 때면
사랑과 위로가 되돌아와요.”라고
전한다.

SA 그룹의 남윤곤 형제도 비슷한
마음을 전한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이겨 낸 이들의 경험과
간증을 들으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SA 그룹 회원들은 부족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어 기쁩니다.”

영원한 결혼을 위해 준비 됨

독신 그룹은 독신들이 영원한
결혼을 위해 준비되도록 돋는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는,
“영원한 결혼을 추구하는 독신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정규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한다. 안식일 정규 모임과 함께,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일 파티, 합동 성전 방문, 장로
정원회 활동 모임, 상호부조회 활동
모임 등 독신 그룹 자체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모임들과 더불어, 독신
그룹은 서울 경인 지역의 독신들을
대상으로 합동 모임을 주최하며 독신
모임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YSA 그룹의 윤나영 자매는, “독신들이
매주 모여 간증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남과 우정 증진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주어집니다.”라고 전한다.

독신 그룹은 특히, 독신들이
영원한 결혼에 관한 소망을 키우는
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YSA
그룹 김혜진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독신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과나
사적인 대화들을 통해 영원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대화에서 결혼에 관한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기보다, 독신들은 결혼에
관한 소망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독이고 소망과 간증을 나누며, 각자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룹 지도자로
봉사한 정신영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독신 그룹 회원들은 힘써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신
그룹에서 받은 여러 축복들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부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단풍인 가족

“단순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까?

FSY를 고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회원들

—청소년, 부모, 지도자, 고문들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는 저마다 대회를 위한 영적 모임을 열었으며, 운영 위원회와 준비 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회를 고대하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 운영 위원회, 준비 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청 소년, 부모, 지도자들은 FSY를 기다리며 어떤 기대를 하며,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을까?

누구보다 이 대회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은 참가자, 즉 청소년일 것이다. 동대문 스테이크 청녀 최지민 자매는, FSY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 그리고 선교 사업을 가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꼽았다. 청주 스테이크 청녀 최정윤 자매는, 대회 참석을 통해 “개인적인 간증이 확고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FSY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돋는 이들은, 참가자의 부모들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FSY에서 영적으로 강화되고, 선교 사업의 소망을 더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되길 고대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스테이크 김연순 자매는, 고등학생인 자녀가 FSY에서 좀 더 영적인 것을 잘 얻어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권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FSY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가 EFY에 다녀와서, ‘간증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신앙의 자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FSY 대회 기간과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대문 스테이크 유미정 자매가 그런 것처럼, 많은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 일정과 대회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학교와 미리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와드 및 스테이크의 청소년 지도자들도 청소년들의 참가를 돋고

있다. 전국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는 FSY를 위한 영적 모임을 마련하고, 예전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간증을 듣기도 했다. 광주 스테이크 청남 회장 정호연 형제는 “리아호나 자료와 페이스북 등 홍보 자료들에 청소년이 접근하도록, 또한 참가자 등록을 하도록 곁에서 독려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들의 역할을 말한다.

참가자, 청소년의 부모, 지도자들의 소망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길 함께 고대해 본다.

조 고문들은 지난 3월부터 지역별로 모여 영적인 학습, 대회에서 진행할 공과를 위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조 고문¹인 서울 서 스테이크 김종현 형제는, FSY 그룹 스터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조 고문



개인 경전 공부에 열심이다. 그는, “FSY 조 고문으로 준비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인 경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 이후로 주님의 영을 이렇게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느낌을 청소년들도 함께 느끼고 선교 사업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곁에서 돋고 싶습니다.”라며 FSY를 준비하며 받은 축복과 소망에 대해 나누었다.

조 고문 그룹 스터디에 이어, 지난 5월 14일과 15일, 부름받은 조 고문들이 전국에서 모여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와 서울 동 종교 교육원에서 열린 1차 합동 조 고문 훈련 모임에 참석했다. 지역 칠십이인 이자 이번 FSY 대회장 구승훈 장로의 감리하에,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²인 한승룡 형제, 이정자 자매가 훈련 모임을 인도했으며, 대회 운영 위원³(이하 운영 위원)인 윤성태 형제와 이승은 자매, 또한 이들을 보조하는 26명의 대회 운영 위원 보조⁴가 이를 진행했다.

이 합동 훈련 모임에 모인 조 고문들은 FSY 메들리를 연습하고, 영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다. 실제 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예외 상황들을 상상해 보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역할극과 토론으로

방법을 강구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신앙 생활을 하며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지도자들과 다른 조 고문들의 답변에서 배움도 얻었다.

조 고문 중 몇몇은 청소년 시절 SMYC와 EFY 참가자로서의 경험을 했다. 동대문 스테이크의 신아현 자매는 그중 한 사람이다. “저는 청소년 시절 3번이나 참가자로서 대회에 참석했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곳에 조 고문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가자 시절, 복음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한 도움을 주며,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에 와드 또래 친구가 없었지만, 대회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고, 계속 연락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회 참가자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대회 운영 위원회⁵는 대회 시작을 고대하며, 또한 대회 참가자들을 만날 생각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운영 위원 이승은 자매는, “제가 살면서 평안함을 가장 자주 느낀 장소가 바로 선교사 훈련원이었습니다. 오천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찬송가를 합창하던 순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강하게 성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이 선교사 훈련원에 온 것과 같은 평안함, 그리고 성신을 FSY에서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조 고문들은 대회 직전까지 그룹 스터디를 지속하며 청소년을 이끌고 돌볼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6월, 그리고 7월(대회 직전)에도 2차, 3차 조 고문 합동 훈련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

주

1. 2016 FSY 임원 지침서(2005), FSY 용어집, 137쪽; 조 고문: 청년 독신 성인 임원. 각 조 고문은 10~12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조를 감독한다. 조 고문과 조원들은 모두 동성이어야 한다.
2. 2016 FSY 임원 지침서(2005), 135쪽;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는 대회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남편과 아내이다.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는 대회 개최지에 상주하며 FSY의 영적인 측면을 책임진다.
3. 2016 FSY 임원 지침서(2005), 135쪽; 대회 운영 위원: 모든 대회에는 대회 운영 위원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이 있어야 한다. 대회 운영 위원들은 전 대회를 감독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
4. 2016 FSY 임원 지침서(2005), 135쪽; 대회 운영 위원 보조 (과거에는 운영 고문이라 불렸다.) (1) 대회 운영 위원들을 돋고 (2) 조 고문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임무를 다하도록 돋는 청년 독신 성인 지도자.
5. 2016 FSY 임원 지침서(2005), 135쪽; 대회 운영 위원회: 대회 운영 위원회는 FSY 대회를 집행하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 대회 운영 위원, 대회 운영 위원 보조, 조 고문 및 보건 담당 고문)



조 고문 훈련 모임에서 있었던 토론, 역할극, 질의응답 장면



강화한다—아들이 내 질문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교회 회원들의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 강화를 돋기 위해 마련된 “결혼 및 가족 관계” 공과 과정을 통해 강화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 모와 자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방식의 의사소통이다.¹

한 신권 지도자는 십대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감독님의 권고에 따라 와드에서 진행하는 “결혼 및 가족 관계”라는 공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이는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신권 지도자는 공과 중, “좌절과 분노를 극복함”이라는 부분에서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하겠다고 결심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신권 지도자는 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하던 중 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다. 분노가 거의 폭발할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공과에서 배운 “좌절과 분노를 극복함”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냈고, 이 신권 지도자는 린 지로빈스 장로의 말씀처럼 배운 것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도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²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흥분과 분노가 가시자, 그는 휴대폰의 시계를 보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들에게 질문을 한 지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문을 한 지 2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은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신권 지도자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다. 아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2분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의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답하기 위해서였다.

이 신권 지도자와 아들의 이야기는 “결혼 및 가족 관계”라는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이 이를 통해 가족 관계가 개선된 실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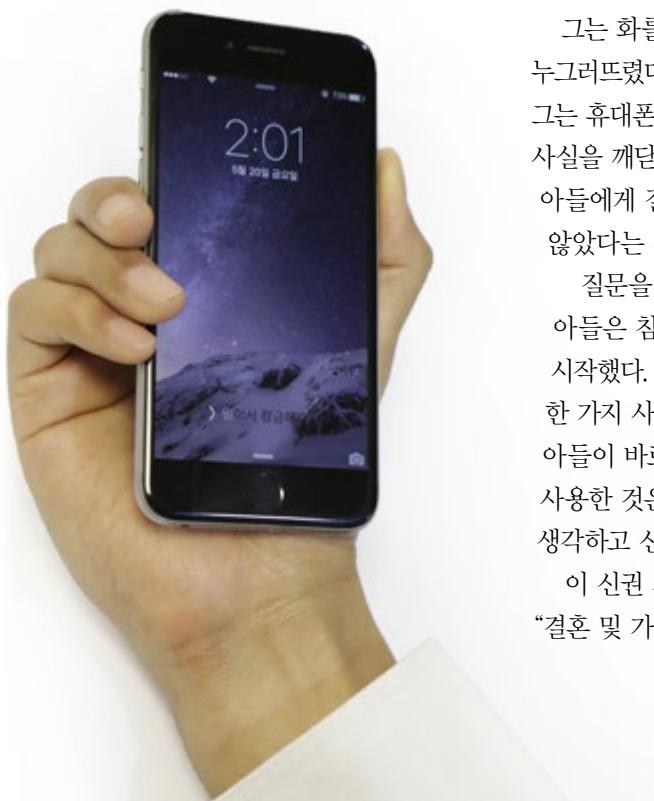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열어 놓은 솔직한 의사소통보다 가족 간의 관계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이는 자녀에게 복음의 원리와 표준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에게 더욱 더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과 상담을 할 때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그들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능력은 성공적인 [관계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듣거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³

오늘 소개한 사례를 보자. 아버지로서 그가 화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을 때, 그는 칠나의 분노 때문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아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을 때, 마음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한 순간이 아닌 오랜 인내와 노력으로 점차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가 발전할 뿐 아니라, 강화된 가정은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 ■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 문의하면 “결혼 및 가족 관계” 공과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

1.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결혼 및 가족 관계, 45쪽 참조.
2. 린 지 로빈스 장로,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결혼 및 가족 관계, 19쪽.
3.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결혼 및 가족 관계, 45쪽.



상담 서비스 소개

가족 서비스

한국 사무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정서적인 행동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갖는 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상담 서비스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행동 방식을 바꾸도록 돋습니다.

상담 치료 과정에는 상담사와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 과정을 통해 그들의 근심이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될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큰 고민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의욕이 없거나 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상담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견디고 극복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갖는다거나 가족과 친구들, 신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그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일은 큰 슬픔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직업을 새로 찾아야 할 때 큰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출산 후 산모에게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면, 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의 가족과 상의하고, 감독/지부 회장님께 상담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교회는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원리에 기초하여 일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와 같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종교를 잘 이해하고,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상담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지부 회장님들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가족 서비스는 신권 지도자들의 요청에 가장 적합한 상담사를 소개하여 상담 치료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상담사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아야 할 다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는 12회 이하의 상담 치료 횟수를 권장합니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나 다른 치료와 병행해야 할 경우, 상담사는 상담이 끝나기 전, 여러분에게 미리 안내할 것입니다.
- 상담사와 내담자 간 신뢰 형성은 상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담 치료 과정에서는 가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신뢰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담사를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 참여자들은 상담 시간에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돌봐야 할 어린이가 있는 경우,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연락 안내

- 이메일: koreaoffice@ldsfamilyservices.org
- 전화: 02) 2038-2549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팩스: 02) 2253-1393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6길 5 (우편번호 04585),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한국 사무소

천안 35주년, 사랑과 모범의 이야기

천 안 와드 조직 35주년을 맞아, 훌커밍데이 행사가 2016년 4월 23일 토요일에 태조산과 천안 와드에서 열렸으며, 24일 일요일에는 와드 대회가 있었다. 1980년대부터 6개월 전 귀환한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천안 와드에서 봉사한 많은 귀환 선교사들과 이곳에 머물렀던 회원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구도자, 저활동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천안 와드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간증하며, 하나가 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전체 일정에서 절정을 이룬 행사는 토요일 저녁에 진행된 노변의 모임이었다. 이 시간은 식사, 감사패 전달식, 간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천안 와드가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패와 함께 모두의 존경과 사랑이 전달되었다. 신앙의 선조들은 간증을 나누어 이에 화답했다.

이곳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귀환 선교사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김순애 자매는, 추운 겨울 밤 선교사 숙소의 보일러가 터졌던 때를 기억했다. “이불을 덮고 동반자와 함께 기도했고, 기적처럼 따뜻하고 무사히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과채림 자매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온 선교 사업이었지만, 천안 와드에서 봉사하며 특별히 많은 사랑과 모범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것을 현재의 전임 선교사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천안 와드 회원인 이정은 형제는 지부 시절 와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자신의 한달 월급을 헌납했던 감동적인 기억을 공유했다.

상호부조회 회장 박일미 자매는 이렇게 모임의 소감을 나누었다. “바자회, 저활동 회원 방문 등 열심히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도, 이 행사에 몇 분이나 오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했던 귀환 선교사들과 회원들, 또 저활동 회원까지 많은 분들이 천안 와드를 기억해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천안 와드가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데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 와드 회원들은 방문자들이 다음 날 와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리운 시절 함께 경험한 어려움과 즐거움, 천안 와드를 위해 힘써 노력했던 기억을 나누었다. 함께 나누는 추억은 더없이 소중했고, 이 모임은 기쁘고 값진 시간이 되었다. ■

포항 40주년, 영원한 고향

불혹(不惑) (공자가 말한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게 된 마흔의 나이)이라는 말로, 포항 지부 회장 이준규 형제가 지부 대회 성찬식에서 말씀을 시작했다.

포항 지부는 올해 지부 조직 4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2일 일요일, 특별 지부 대회를 열었다. 역대 지부 회장들이 이곳에 초대되었으며, 또한 포항 지부와 인연이 있는 회원들도 참석했다. 평소 회원들의 숫자는 울진 그룹을 포함하여 70여 명 정도이나, 이날 포항 지부는 방문자를 포함하여 140여 명의 회원들로 차고 넘쳤다. 모두 서로의 모습과 간증이 그리워 면 곳에서 이곳으로 모인 이들이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이 지부 대회의 주제 성구였다.

부산 선교부 배로우 회장의 감리로 성찬식이 진행되었으며, 연사로서 이준규 지부 회장에 이어 정외곤 형제가 말씀했다. 그는 1976년에 포항 지부가 조직된 해에 선교사를 만나 침례를 받았으며, 포항의 역사를 바로 곁에서 목격한 살아있는 중인이다. 그는 말씀을 시작하며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선교사들을 만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사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복음이 주는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정 형제는 포항 지부를 위해 함께 봉사해 온 회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포항 지부의 개척자인 신당 와드 김정숙 자매가 보내 온 편지도 읽어 주었다.(13쪽에 요약 게재)

이날 주일학교와,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시간은 합반으로 진행되었으며, 포항 지부 출신의 방문자들과 역대 지부 회장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토요일 저녁 노년의 모임에서,
천안 와드 회원 및 방문자



지부 대회가 끝난 뒤,
포항 지부 회원 및 방문자

1997년부터 2006년도 사이 두 번이나 포항 지부 회장으로 봉사한 대구 스테이크 이종한 형제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겪었던 어려움은 제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역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한 대구 스테이크 손봉규 형제 또한, 11개월 정도 포항 지부에서 봉사한 것이 신앙생활 17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부산 스테이크의 김명희 자매는 포항의 발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쳤다. “저는 20대에 포항에서 선교사를 만나 1976년 10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떠날 때, 포항 지부가 없어질 것 같은 염려가 되어 이곳이 계속 번성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잘 남아서 주님을 함께 뵙기를 희망합니다.” ■

신당 와드 김정숙 자매의 편지

포항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온 마음을 다해 이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편지로 인사드리는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포항에 머물러 살다 일부만 서울로 이사해야 했고, 저는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1975년, 이웃의 초대로 간 한국 대회를 계기로 교회와 인연을 맺었고, 참된 교회를 알게 된 기쁨이 컸기에 포항에 있는 가족, 친척,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포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고,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부산 선교부를 찾아가 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여 명의 명단을 선교부에 주고 사정을 설명하자, 선교부에서는 매우 놀라워하며, “선교 회장님께서 경주와 포항 중 어느 곳에 먼저 지부를 조직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선교부 회장이신

한인상 장로님께서 포항 지역을 헌납했고, 1976년 2월, 포항에 있는 저희 집 거실에서 포항 지역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70여 년을 넘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힘든 고난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기초에 충실해지려 노력했을 때 기쁨과 평안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며, 부름을 통해 발전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소개하는 도구가 되어 하시어 많은 기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지만, 화상 통화로 안식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신권 형제님들의 방문으로 성찬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14년 전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며, 저를 기억해 주고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포항 지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

재활동의 열쇠—정대판 형제와 나

마크 피터슨 형제는 1965년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부산 선교부 회장, 미군 지방부 회장으로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렀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아시아 및 근동언어학과 교수로 재직,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 학자이자 한국 문화의 전도사라고 일컬어진다. 지난 5월 1일,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열린 노년의 모임에서 마크 피터슨 형제가 전한 말씀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마크 피터슨 형제



49년 전인
1965년,

나는 전임
선교사로서
당시 서울
신촌 지부에서
봉사했다.

그곳에서 당시 지부 회장이자 한국 교회의 개척자라 불리던 정대판 형제를 만났다. 정 형제는 한국 교회 초기에 몰몬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찬송가를 번역했다. 그와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구도자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정 형제의 집에 들려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수도 없이 그를 찾아가며 우정을 키웠고, 나는 그를 깊이 존경했다.

나는 귀환 이후 학업을 마치고, 1978년,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의 이사장으로 다시 한국에 왔지만, 정대판 형제는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가 재활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그를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1983년, 브리검 영 대학 교수로 임용되며 한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정대판 형제에게 연락해야겠다는 무시할 수 없는 의무감을 느꼈다.

수소문 끝에 그의 집주소를 알아냈고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마음 아픈 소식도 들었다. 나는 곧장 차를 타고 정대판 형제가

살고 있던 어두운 시골 동네로 갔다. 대화를 하기에 앞서 그의 아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곧장 이들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의 아내는 필요한 치료를 받고 곧 회복되었는데, 알고 보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기운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한 기독교 교회에서 음악 지휘자를 하며 20만원을 버는 것이 그의 월 수입의 약 절반이었고, 그에게 그것은 매우 큰 돈이었다. 그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난 성신의 영향력에서 오는 확신을 느꼈고, 담대히 질문했다.

“몰몬경을 번역했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줄 아시죠?” “네.” 나는 계속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찬송가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고, 그는 그것들이 참되다고 인정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아시죠?” “네.” 나는 이어서 이렇게 권고했다.

“그럼 지휘자로 일하는 그 교회에 못 나간다고 연락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유한 회원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이루어 낸 후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고 겸손하게,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지켰고, 주요 수입원이었던 지휘자 자리를 잃었다.

나는 심지어, 십일조를 내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돈이 생기면 십일조를 내라고 권고했다. “(이 모든 말을) 믿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는 다시 마지막으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1987년,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으면서 내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정대판 형제는 마산 와드 감독이었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정 형제와 그 아내는 우리 부부를 용숭하게 대접했다. 그날 정 형제가 결제한 음식값은, 그가 지휘자로 일하면서 받았던 수입인 2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다. 그가 주님께 보인 순종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영적, 현세적 축복으로 되돌아왔다.

각자 집에서 쓰지 않는 열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활동의 열쇠’라는 이름을 붙이고, 각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그 열쇠를 볼 때마다 기도하며, 누구를 재활동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나는 정대판 형제를 재활동시켜야 하는 열쇠(의무)가 있었다. 성신의 영향력이 그에게 담대히 말하도록 부담을 주었다. 나는 정대판 형제에게 친사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친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정 형제 덕분에 나의 간증이 크게 발전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

교사 평의회,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016년 새로 시행되는 교사 평의회 모임,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소책자에 관한 안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소책자는 teaching.lds.org/kor과 복음 자료실 앱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와드에서는 ‘교사 훈련 모임’ 등의 이름으로, 주일학교 회장단이 진행하는 복음 교육 과정¹이 진행되어 왔다. 앞으로는 교사 평의회 모임이 이러한 복음 교육 과정을 대체한다. 마찬가지로, 복음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던 교재인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이라는 책자로 대체된다.

교사 평의회 모임²

교사 평의회 모임이란, 각 와드에서 교사들이 모여 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의 원리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조언을 나누는 시간이다. 모임 명칭에 ‘평의회’라는 용어가 들어가듯이, 이 모임은 보통의 훈련 모임이 아니라 교사와 지도자가 교수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다.

모임의 참석 대상은, 와드에서 정원회 또는 반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다. 또한 해당 교사를 담당하는 신권 또는 보조 조직 지도자가 적어도 한 명이 모임에 함께 참석한다.

매달 열리는 이 모임은 일요일 모임 전후가 아닌 세 시간의 일요일 모임 일정 중에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녀 모임 시간에 모여 교사 평의회 모임을 갖고, 반대로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청녀 교사들은 주일학교 시간에 열리는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한다. 초등회 교사들은 초등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두 모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한다.

교사 평의회의 토론 진행은 주로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이 담당한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가르친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질문을 하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또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원리를 토론하고, 실습한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소책자³

38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교사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초등회, 주일학교, 상호부조회, 청녀,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교사뿐만 아니라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료에 설명된 원리는 모든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활용되는 교재로, 교사 및 영성 교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는 다른 사람 – 예컨대 회장단의 회장이나 주제에 대한 강의를 카고고 풍자 판과 같이 400쪽 흰색 종이에 책들이 충족한 교재로 기록되는 것이다.

복음 교사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토론 지침으로 사용한다.
- 교사 개인은 자료를 학습하여, 어떻게 하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배운다.
- 가정의 밤에서 공과로 활용한다.
- 회장단 모임, 와드 평의회 또는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에서 토론 지침으로 사용한다. ■

* 2015년에 제작된 이 소책자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침[와서 나를 따르라: 청소년 학습 자료 안내이다](2012)과는 다른 교재이다.

참조: 2016년 7월호 리아호나에는 교사 평의회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기사가 실려 있다.(12~13, 28~29, 30~31쪽) 교사 및 주일학교 회장단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5.7. 복음 교육 과정 참조. 31쪽.
2.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5). 교사 평의회 모임 참조. 3쪽.
3.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5). 서문 참조. 2쪽.

새로 부임 받은 선교사: 자매 5명 / 장로 5명



강원호 장로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김선영 자매

벤쿠버 스테이크
한인 지부
대전 선교부



문유림 자매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런던 성전
방문자 센터



박철준 장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이나은 자매

유타 미드베일
스테이크
한인 지부
서울 선교부



이은지 자매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서울 선교부



이홍빈 장로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서울 선교부



정종혁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조혜원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서울 선교부



최경락 장로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남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홍성 지방부

대천 지부 지도자 대리: 윤종순 형제(전임 지부 회장: 한상필 형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감독: 박관준 형제(전임: 조인호 형제)